

제주 국제체조대회 정례화 '청신호'

5년 만의 코리아컵 국제대회 성공 마무리 2020년 도쿄올림픽 직전 개최 가능성 높아 제주 전지훈련·북한 출전 기대감도 고조

2014년에 이어 5년 만에 재개된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돼 내년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지 성격으로서 2년 연속 제주 개최는 물론 정례화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 14개국 11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8~19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회 코리아컵 제주국제체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당초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 북한선수단이 불참했지만 국내 체조 간

판스타인 양학선과 여서정은 물론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인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도마의 신' 양학선이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원조 도마의 신' 여서정의 딸 여서정은 도마 금메달과 평균대 은메달을 차지했다. 올해 17세의 여서정은 이번 대회 도마 결선 1차 시기에서 난도 6.2점의 신기술을 성공시켜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남녀 동반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

을 부풀렸다.

또한 한국은 김한솔이 마루 은메달과 도마 동메달, 박민수가 링 동메달, 이은서가 이단평행봉 금메달, 이정호가 안마 동메달, 배가람이 철봉 은메달과 평행봉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전국종별체조대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북한선수단의 참여가 불발되면서 일부 기업의 광고 협찬이 무산되고, 헝가리 유람선 참가 등의 여파로 K-POP 축하공연도 축소돼 흥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각각 정상급 선수들의 참여와 함께 사상 첫 기계체조와 리듬체조 경기의 동시 진행, 외국선수단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용 제주도체조협회장은 "와타

나베 모리나리 국제체조연맹(FIG) 회장을 비롯해 기술위원과 심판진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우리 대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처음으로 동시개대 같은 경기장에서 기계체조와 리듬체조를 진행한 것과 심판진의 제주 관광체험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져 대한체조협회는 내년에도 제주에서 코리아컵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을 한달 정도 앞두고 제주대회가 성사되면 전지훈련을 겸한 외국선수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북한선수단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커 국제대회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악박물관의 '가족등반교실'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전문강사의 지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악박물관 인공암벽장 새단장

최신 트렌드 홀드 교체공사 완료 매주 주말 '가족등반교실' 운영도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은 인공 암벽장(박물관 야외 위치) 시설개선을 위해 최근 홀드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가족등반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악박물관의 '가족등반교실'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전문강사(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체육지도사)의 지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산악박물관의 '가족등반교실'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전문강사(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체육지도사)의 지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http://www.hallasan.go.kr>)-탐방프로그램예약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시 활동하기 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준비하면 된다. 전화(064-710-463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산악박물관은 2015년 인공암벽장(가로 18.6m, 높이 4m)을 설치해 다양한 산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기존 루트의 홀드를 다양한 크기의 볼륨 홀드로 전면 교체해 '가족등반교실'을 비롯해 한층 특화된 산악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설명했다.

특히 높이 5m 미만의 낮은 바위를 등반하는 암벽등반의 한 장르인 '볼더링'을 도입해 가족등반교실에 적용할 예정이다.

'볼더링'은 전신을 활용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력과 분석·실행 능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장르로, 안전을 위해 두꺼운 매트리스만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성용 기자 sycho@ihalla.com

류현진, 세번째 시즌 10승 실패

야속한 수비에 시즌 첫 3실점... 평균자책점 1.27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팀 야수진의 아쉬운 수비 탓에 올 시즌 처음으로 3실점을 했다.

수비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한 류현진은 시즌 10승과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승 수확을 또다시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동안 안타 6개를 내주고 3실점(1자책) 했다.

류현진이 올 시즌 한 경기에서 3점 이상을 내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앞선 14번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실점을 2점 이하로 막았다.

정규리그 기준 류현진의 마지막 3점 이상 실점 경기는 지난해 9월 12일 신시내티 레즈와의 원정 등판(5이닝 3실점)이었다.

하지만 류현진의 3회 초 2실점은 모두 비자책으로 기록돼 자책점은 1점이 됐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 1.26에서 1.27로 살짝 올랐지만, 여전히 이 부문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질주했다.

류현진은 107구를 던져 삼진 5개를 잡았고, 볼넷은 4경기 만에 처음으로 1개를 허용했다.

류현진은 3-3으로 맞선 7회 초 마

운드를 이미 가르시아에게 넘겨 소득 없이 물러났다.

류현진은 5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시즌 9승을 올린 뒤 3경기 연속 시즌 10승·통산 50승 달성 가능성이 불발됐다.

류현진은 앞서 11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6이닝 1실점), 17일 시카고 컵스전(7이닝 2실점 비자책)에서 나란히 호투하고도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다만 4월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 이래 11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타석에서는 두 차례 모두 보내기 번트를 성공했다. 타율은 0.115(26타수 3안타)를 유지했다.

다저스 타선은 0-1로 뒤진 2회 말 면시의 2루타와 테일러·맷 비티의 연속 안타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1-3으로 끌려간 3회 말에는 선두 타자 버두고의 우중월 2루타와 저스틴 터너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다저스는 2-3으로 뒤진 5회 말 선두 타자 버두고의 우중월 솔로 홈런으로 3-3 동점을 만들었지만 역전에는 실패했다.

류현진은 패전을 면한 것에 만족하며 내셔널리그 첫 10승 달성을 또한 한 번 다음으로 미뤘다.

연합뉴스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회에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좀비' 처럼 부활한 정찬성 모이카노에게 58초 TKO승

정찬성(32·코리아존비MMA·사진)이 그의 별명인 '코리아 좀비'처럼 다시 일어섰다.

정찬성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UFC 파이팅 나이트 154' 메인이벤트 페더급 경기에서 헤나토 모이카노(30·브라질)를 1라운드 TKO로 제압했다.

정찬성의 종합격투기 전적은 15승(5KO·8서브미션) 5패가 됐다. UFC 전적은 5승2패다.

지난해 11월 아이르 로드리게스(멕시코)에게 빼아픈 KO패를 당한 정찬성은 7개월 만의 재기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랭킹 5위인 모이카노를 꺾으면서 타이틀전에도 한 걸음 다가섰다.

정찬성이 1라운드에서 경기를 끝낸 것은 2011년 UFC 140에서 마크 호미니에게 6.2초 KO승을 거둔 이후 이번이 9번 째다.

경기는 순식간에 끝났다. 탐색전을 펼치던 정찬성은 모이카노가 왼손 잭을 내는 순간 이를 피한 뒤 오른쪽 카운터 펀치를 모이카노의 턱에 적용시켰다.

왼손 훅 언타까지 맞은 모이카노는 그대로 매트 위로 쓰러졌다.

정찬성은 모이카노의 등에 올라타 파운딩 펀치를 날렸다. 주심은 58초 만에 정찬성의 승리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이낙연 총리 국회 시정연설 10: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1:50 한식의 마음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퍼퓸(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용왕님 보우하사(재) 8:30 TV 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검법남녀 시즌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정보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1:20 열혈정 피트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방울 유치원 1 9:30 원더볼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5:45 출몰! 슈퍼펍 16:15 세미와 매직큐브 17:20 열혈정 피트 18:00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18:45 긴급상황 우리몸 X파일 19:00 제로니모 스틸링의 모험 21:50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 12 13:0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15: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3:10 트래킹로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7:00 제보자들(재)	12:00 12 MBC 뉴스 12:25 검법남녀 시즌2(재) 13:00 검법남녀 시즌2(재) 13:35 헬로킴지 신기한 자연교실 너는 내 운명(재) 14:55 2시 뉴스 외전 15:25 꼬마돌도도 2 16:55 뽀롱뽀롱 모우하 놀자 16:55 아이돌타임 프리파라 17:25 빠샤 매거진 17:55 TV특강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클레! NOW 제주(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나눔홀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술집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기점 탐구생활 21:35 라디오강연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예들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기요무대 23:00 오늘밤 김제동 23:40 저널리즘 토크쇼 J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옥탑방의 문제아들 22:00 퍼퓸 22:35 퍼퓸 23:10 안녕하세요 1부 23:55 안녕하세요 2부	18:50 용왕님 보우하사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검법남녀 시즌2 21:30 검법남녀 시즌2 22:05 스테이트 23:05 제주MBC 스페셜 내일의 식탁	18: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9:00 JIBS 호국보훈의 달 특집 장병 너는 내 운명(재) 18: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초면에 사랑합니다 22:40 초면에 사랑합니다 23:10 100회 특집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1부 23:50 동상이몽2 너는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내 별명은 대토령 9:30 헬로 코리아 10:00 KCTV 다큐스페셜 13:00 내 별명은 대토령 14:00 KCTV 뉴스 15:50 KCTV 시청자세상 16:10 스포츠다큐 더 레슨 18:00 헬로 코리아 18:30 내 별명은 대토령 19:00 KCTV 뉴스 7 21:30 KCTV 종합뉴스

오늘의 운세	24일
	36년 몸이 나른해지니 건강관리에 투자하라. 48년 이사 변동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 60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고 실천하는 자신감과 자력도 있다. 72년 자신감의 용기가 만능으로 보일 수 있으니 대인관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84년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니 내 주장은 적게 하라.
	37년 건강증이 오거나 한 말을 또 하게 된다. 49년 이사 이동이 있고 직업에 변화도 생긴다. 61년 하고자 하는 일에 기쁜 소식과 귀인을 접하니 신중하라. 73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거나 상가, 문상 갈 일이 생기게 된다. 85년 옛사람의 충고가 있으면 마음에 담아 실천하라. 기회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38년 이웃과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게 된다. 50년 자식이나 임부주인에 갑작스런 변화나 충격이 올 수 있다. 62년 친구, 동료 동업자에 의한 뜻하지 않는 지출이 생긴다. 74년 기혼자는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고 미혼자는 좋은소식이 온다. 86년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투자를 하거나 준비하는데 금전지출.
	39년 나쁜 소식을 접할 수 있으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를 너무 신경쓰지 마라. 51년 흥동이 생기거나 재물이운이 갑시다. 63년 조급함과 경계심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포용력있는 배려심이 요구된다. 75년 구설 또는 소송건이 생기니 언행주의. 87년 바쁘고 분주하나 마음에 여유가 넘친다. 이성관계 걸.
	40년 가족이나 친지들과 외식이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즐긴다. 52년 신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작은 일에 흥분하게 되니 마음에 평화를 갖자. 64년 불법적 일 뇌물에는 유혹 당하지 마라. 구설이 따른다. 76년 직장인은 칭찬이 있고 실업자는 희소식이 있다. 88년 애인 또는 친구와의 갈등이 오면 관용이 필요하다.
	41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것이 좋다. 53년 신용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65년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으며 활동력이 늘어난다. 77년 사랑은 행운을 타고 희망을 준다. 결혼이든 동자의 기쁨이 있다. 89년 취미 또는 직장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성이 생기기도.
	42년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주의, 분실주의. 54년 피부 미용업 사수나 호조, 문신상 이익이 있다. 66년 관계나 구설수 주의. 안전사고 유의하고 언쟁은 자제하라. 78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불화가, 미혼자는 이성간 다툼이 있다. 90년 현실에 만족하라. 과욕이었던 꿈이 될 수 있으며 손실을 가져온다.
	43년 과로 또는 음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니 건강이나 신장이 약해진다. 55년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도하려고 한다. 67년 관청의 인허가가 있으며 문서 관련 길한 작용이 있다. 79년 직장인은 인기가 있고 인정 받는다. 금전적으로 지출이 증가. 91년 친구에 관한 기쁜 소식이나 방문이 있다.
	44년 배반 배신이 따르거나 구설수가 따르니 동업은 자중하는게 좋다. 56년 남과 더불어 의는 또는 협조할 일이 발생한다. 68년 과도한 자신감이 때론 갈등을 낳기도 하니 너무 튀는 행동은 거슬린다. 80년 영입에 이익이 있고 교제가 생기기도 한다. 친구가 생기기도 한다. 92년 운전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45년 감언이설이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라. 독소가 있으며 해악이 있다. 57년 안전사고를 주의하라. 관재구설수가 있다. 69년 자녀의 일이 생기거나 문서 변동이 생긴다. 81년 집중력 있는 시간대에 집중하고 휴식도 필요한 만큼 하라. 93년 남치는 것은 부추함보다 못하니 여유와 과욕을 버리는 연습을 하자.
	46년 세무감사, 위생검열이 있을 수 있다. 대인관계 언행주의. 58년 부속함을 채워주는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른다. 70년 중간역할을 잘하면 인정받고 승진 기회도 찾아온다. 82년 경쟁이나 다툼 내가 손해본다. 남의 일에 관섭하지 마라. 94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문서 이동, 변동은 신중히.
	47년 명예 또는 기쁨이 생기고 이익이 증가하니 몸을 아끼지 마라. 59년 자녀문제로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 71년 사회생활은 총이나 거점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기마라. 83년 부모님 걱정이 앞서니 편안하도록 전화를 드려라. 95년 서두르지 말고 한번 더 생각하든 신중함이 요구된다.